//hyu.wiki/ERICA%EC%B4%9D%EC%97%AC%ED%95%99%EC%83%9D%ED%9A%8C

ERICA총여학생회

1959년 제1회 여학생회로부터 계보를 이어오던 총여학생회는 2014년 제28대를 끝으로 2015학년도에 폐지됐다. 총여학생회가 조직될 당시의 사회와 최근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가 폐지됐고, 그 흐름과 궤를 같이 하게 됐다. 그동안 총여학생회는 여론국, 사무국, 대외협력국, 학술국 등으로 구성돼 여학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. 구체적으로 여론국은 학생들이 총여학생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, 총여학생회 스스로도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져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. 사무국은 총무, 회계의 기본 역할에서부터 총여학생회의 방향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, 공약이행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.

대외협력국은 총여학생회와 비슷한 고민으로 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체나 사업들을 학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, 기업 홍보차원에서 진행하는 스폰서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을 매 행사 때마다 학생들과 나누는 활동을 담당했다. 마지막으로 학술국은 총여학생회의 전반적인 교양자료를 준비하며, 매월 주제에 맞춰 알아야 할 지식들을 학습하고 이를 총여학생회 임원진들과의 토론을 통해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돕는 것은 물론, 정리된 정보 를 각종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.

주요 활동으로는 해오름식, 별망제(대동제), 여성문화제 등이 있다. 매년 3월 해오름식에서는 총여학생회의 존재를 학우에게 알리고, 다양한 학우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게임과 여성학 혹은 생리 공결제 등의 여성관련 지식을 알리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했다. 별망제에서는 여학우들의 취업 고민 상담, 노동 문제 해결, 그림으로 알아보는 심리 상태 및 심리 상담, 월경 주기 팔찌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. 매년 10월 열린 여성문화제는 학내의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여성주의 축제를 만들어 가는 자리였다. 진보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남녀의 문제를 바라보고 남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봄으로써 서로간의 갈등을 풀어가며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든 자리다. 그밖에 강연과 퍼포먼스, 다양한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. [1]

1. ↑ <출처> ERICA40년사